

# 인민일보 번역뉴스의 가독성에 관한 연구\*

강수정\*\*

## <目 次>

1. 서론
2. 번역뉴스에 관한 선행연구
  - 1) 번역뉴스 개념과 범주
  - 2) 번역뉴스 변형과 가독성
3. 인민일보 온라인 한국어판의 가독성 분석
  - 1) 분석의 방법
  - 2) 한국어판 번역뉴스의 변형 유형
  - 3) 분석의 결과
4. 결론

## 1. 서론

본 연구는 번역된 뉴스물에 대한 번역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집필되었다. 최근 국제뉴스에서 증가하고 있는 번역뉴스<sup>1)</sup>에 주목하여 그 양상을 고찰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번역뉴스 현상은 2000년대 이후 인터넷을 통한 글로벌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과제번호 1-1403-0003).

\*\* 숙명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부 조교수

1) 번역과 뉴스가 결합된 '번역뉴스'는 번역과 뉴스의 논리적 관계에 의하여 '번역된 뉴스'라는, 번역이 뉴스를 수식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합성명사이다(합성명사 정의는 국어국문학 자료사전(1988) 참조). 정치뉴스, 사회뉴스, 국제뉴스와 같이 해당 뉴스의 속성을 정의하는 용어를 앞에 붙이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본고에서 '번역뉴스'를 정의한다. 따라서 본고에서 '뉴스번역'은 뉴스를 번역하는 행위나 과정을 의미하고, '번역뉴스'는 번역된 뉴스나 뉴스물 자체를 의미한다.

많은 언론사들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뉴스를 언어권별로 번역해서 제공하는 것에서 출발해서, 최근에는 해당 언어권 독자들의 관심을 고려해서 차별화된 뉴스를 선정하고 지면 배치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현재 국내의 주요 신문사인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등 일간지의 경우 중국어, 영어, 일본어 뉴스 페이지를 기본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조선일보 중국어판은 중국인 독자들의 주요 관심사를 고려해서 한류스타나 서울관광, 성형수술 관련 기사를 상대적으로 눈에 띄도록 배치하고 있으며, 일어판 서비스의 경우 아예 연예면 페이지를 따로 만들 정도이다.<sup>2)</sup> 중앙일보는 중국의 웨이보 등 SNS와 연계된 번역뉴스를 중국어로 제공하는 등 이들 매체들은 모두 해당 언어권의 특성을 고려한 번역뉴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의 매체들은 한층 더 나아가 한국과 중국 양방향의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의 뉴스에 한국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국어 번역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중국어권에서 한국의 뉴스에 접근할 수 있는 한국뉴스 페이지를 따로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번역뉴스 현상이 일반적이다. 현재 CCTV, 신화통신, 인민일보 등이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인민일보 온라인 사이트(人民網) 한국어판(kr.people.com.cn)의 경우 국내 대표 포털인 네이버의 뉴스검색에 등록되어 있을 정도로 번역뉴스를 한국 독자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번역뉴스의 확장은 매체환경이나 저널리즘 측면에서 국제뉴스가 기존의 글로벌 통신사 중심의 정보흐름에서 다양화 되었다는 것을 의미<sup>3)</sup>하겠지만, 인터넷(혹은 지면)으로 전달되는 번역된 뉴스의 경우 소스가 되는 원문기사가 해당 지역의 매체를 거치지 않고 번역을 통해 독자들에게 직접 제공되기 때문에 번역된 기사가 목표언어권 독자들에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수용가능할지, 원문기사의 내

2) 정철운, 「한국언론의 글로벌 전략 사례」 『신문과 방송』 제535호, 2015년 7월호, 12쪽.  
3) 국제뉴스가 AP, AFP, 로이터 같은 글로벌 통신사에 의해 독점적으로 유통됨으로써, 국제뉴스 정보독점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이러한 독점적 정보에 대한 의존이 특과원부족, 국제부기자의 자질문제 등 국내언론의 국제뉴스품질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으로 이어져왔다. 자세한 논의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김성해·유용민·심영섭, 「글로벌 디지털 시대의 국제뉴스 - 온라인 국제뉴스에 대한 국가별 비교연구」 『언론정보연구』 제48권 2호, 2011년, 181-222쪽.

용이 어디까지 보전되어야 하는 것인지 등의 뉴스 번역행위의 방향성이 핵심적 고민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번역이라는 행위는 대개 특정한 언어로 작성된 원문을 다른 언어로 전환하는 작업이라 이해할 수 있지만, 국제뉴스를 번역하는 과정에는 이러한 행위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번역뉴스는 그 생산과정에서 부터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 박천일<sup>4)</sup>에 따르면, 국제뉴스는 수집과 처리 단계가 분리되어 있을뿐더러, 한국 매체들에서 국제뉴스는 개인의 의사결정이 아닌 집단적 책임성과 연결된다. 정나영<sup>5)</sup> 역시 번역사와 데스크의 상호작용 속에서 번역뉴스가 생산됨을 보여주고 있고, 우즈웬과 쉬젠중(吳自選, 許建忠)의 연구<sup>6)</sup>에서도 CCTV에서 기자가 작성한 뉴스 원고가 번역자와 에디터를 거쳐 데스크를 통해 수정되는 작업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뉴스번역의 과정에 대해 비엘사와 바스넷(Bielsa & Bassnet)<sup>7)</sup>은 뉴스의 원저자는 한 명의 개인이 아니며, 보도의 법적인 문제와 뉴스기관의 규범적 필요성에 기인하는 집합적 원저자성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즉 국제뉴스는 번역사-기자-데스크 등의 집합적 의사결정과정에서 만들어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원문뉴스에 대한 변형이 수반되는데, 문제는 그 변화의 폭이 크다는 데 있다.

이는 번역뉴스가 뉴스라는 속성에 기반을 두기 때문인데, 일반적으로 원작의 길이와 형태가 보존되는 문학번역 등과 달리 뉴스번역에서는 시간 혹은 지면의 제약으로 인한 편집의 과정을 통해 기사가 조정된다. 따라서 뉴스 원문을 다른 언어로 직역하는 것은 뉴스를 번역하는 흔치 않은 방식이고, 대개는 목표언어권 독자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뉴스를 재구성하여 새로운 기대를 가진 독자들이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텍스트를 조절한다.<sup>8)</sup> 특히 중국매체의 경우 외국의 통신사나 매

4) 박천일, 「방송의 국제뉴스 선정과정과 통제 매커니즘 비교분석 연구」 『언론과 사회』 제7호, 1995년, 94쪽.

5) 정나영 (2013), 「TV 뉴스 번역에서의 삭제 양상 분석- KBS월드뉴스를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 제14권 1호, 2013년, 303쪽.

6) 吳自選, 許建忠, 「論電視新聞英譯的重寫策略」 『上海翻譯』, 2011(1), 25쪽

7) Bielsa, Esperanca and Susan Bassnett, 노승엽 외 역, 『글로벌 뉴스와 번역』, 서울, 도서출판 동인, 2009년, 116쪽.

8) 위의 책, 25쪽.

체의 기사들이 중국뉴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어로의 번역과정에서 문장길이 차이로 인한 정보 불일치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sup>9)</sup> 따라서 중국 매체들은 뉴스가 지니는 가치만을 보존한 채, 중국독자들의 이해를 위해 원문텍스트에 일정한 변형을 주게 된다.

결론적으로 번역뉴스는 원문 그대로 번역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언어의 독자들에게 '뉴스'로서 기능하기 위해 새로운 텍스트로 변형 혹은 재창조 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뉴스가 지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번역뉴스가 원문뉴스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번역뉴스가 지니는 핵심적 특징이라고 하겠다. 번역뉴스의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전통적 번역의 의미에서 원문 뉴스가 지니는 가치가 어떻게 보전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일반적인 번역의 시각으로 번역뉴스를 바라볼 경우 번역뉴스 해석에 상당한 오류를 범하게 된다. 따라서 연웨이(閔威)<sup>10)</sup>는 뉴스 번역과정에서 번역사들은 원문의 작가를 중심을 두는 입장에서 벗어나 뉴스번역이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과정임을 인지하고 목표언어권에서 수용가능하게 커뮤니케이션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독자중심 번역시각'을 가질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다시 말해 뉴스번역사들에게 원문에 대한 '충실성'에서 벗어나 번역뉴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독자중심의 '가독성'을 제안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중국매체의 뉴스가 한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원문이 변형되는 것을 목표언어권 독자들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으로 규정하고, 중국매체의 한국어 뉴스서비스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원문뉴스에 비해 어떠한 방식으로 변형되어 한국어 독자들의 가독성을 높이고 있는지 그 양상을 검토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제시된 번역방법이 뉴스번역에 유용하게 적용되는지를 함께 고찰해 보고자 한다.

9) 呂宁, 「新聞編譯中的“選擇”——以『參考消息』的一篇報道爲例」, 『新聞記者』2006(10), 58쪽.

10) 閔威, 「對外新聞編譯的忠實與叛逆」, 『中國翻譯』, 2011(6), 27쪽.

## 2. 번역뉴스에 관한 선행연구

### 1) 번역뉴스 개념과 범주

본 연구에서는 국제뉴스를 번역한 텍스트를 ‘번역뉴스’라 규정하고 있다. 뉴스 번역은 뉴스를 번역하는 행위와 과정에 초점을 맞춘 개념인 반면, 번역뉴스는 번역행위의 결과물인 뉴스 혹은 뉴스물을 의미한다. 여기에서의 번역뉴스는 큰 틀에서 국제뉴스의 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국제뉴스는 ‘국가주권’이 행사되는 물리적, 상징적 영역 외부에서 발생하고, 그 행위 또는 관심의 주체가 국가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외부인으로 국가이익 및 국제사회 공동의 이해관계나 인류의 보편적 관심사와 관련한 주요사건 및 사안을 다루는 뉴스<sup>11)</sup>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글로벌 시대가 열리면서 국제뉴스와 국내뉴스의 경계가 모호해졌다는 지적도 있고, 발생지역과 주체의 문제도 있어, 간단하게는 일정한 국가 밖에서 보도되는 뉴스 혹은 한 국가 이상이 관련되는 뉴스<sup>12)</sup>라고도 한다. 결국 국제뉴스는 보도하는 대상, 목적, 그리고 수용자 차원에서 국내뉴스와 구분이 되고, 지면으로 보면 국제면을 구성하는 뉴스라고 하겠다.

기본적으로 국제뉴스의 작성 주체는 주로 국제부기자, 해외특파원, 통신원(프리랜서), 외신(연합제공) 등으로 구성된다.<sup>13)</sup>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많은 매체들에서 다국어로 번역된 뉴스 서비스가 늘어나고, 국내매체들에서는 대개의 국제뉴스를 외신에 많이 의존하는 관계로 국제뉴스 지면 구성에서 외신을 번역하는 번역사의 역할이 커지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중앙일보의 경우 1주일에 1건 이상은 인민일보 한국어판에서 제공하는 번역뉴스를 온라인 혹은 지면을 통해 꾸준히 제공하고 있어, 번역뉴스가 국제뉴스의 한 부분을 확실하게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번역뉴스를 다루는 매체와 지면이 증가하면서, 번역뉴스를

11) 김성혜 외, 위의 논문, 184쪽.

12) 김덕모, 「한국언론의 국제뉴스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6년, 4쪽.

13) 김성혜 외, 위의 논문, 209쪽.

작성하는 주체는 누구이며, 일반국제뉴스와 번역뉴스를 구분하는 경계가 모호하게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뉴스 생산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텍스트 처리작업을 '뉴스번역(news translation)'으로 지칭하여<sup>14)</sup>, 넓은 범위로 번역행위가 포함된 모든 국제뉴스를 뉴스번역이라 칭하고 번역연구의 범위를 저널리즘의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광의의 '뉴스번역'의 개념이 저널리즘과 번역이라는 매체 속에서 존재하는 기능적 측면을 간과하고, 기자와 번역사의 관계를 통합시킴으로써 번역현상을 분석하는 연구의 범주를 구분 짓기 어렵게 한다고 본다. 따라서 중국매체의 번역뉴스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번역뉴스라는 개념의 적용 범주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뉴스의 속성은 객관성을 갖추어야 하나 뉴스가 구성되는 과정은 현실을 거울처럼 있는 그대로 반영하기보다는 미디어 종사자와 미디어 조직 나름대로의 특성에 따라 경험적으로 형성된 프레임(frame)속에서 새롭게 재구성 된다<sup>15)</sup>는 것이 뉴스를 규정하는 시각이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국제뉴스 역시 해외에서 일어난 특정한 사건(event)에 대해 매체가 뉴스적 가치를 부여해서 창출하는 일종의 구성물로, 객관적 정보와 구성된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생산된다. 즉 번역된 기사들을 조합한 국제뉴스라 할지라도 기자들이 그 사건에 특정한 뉴스적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을 통해 구성하는 뉴스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문화일보 2015년 12월 8일]

중국이 향후 5년간의 경제 계획에서 소득격차 감소를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한 가운데 중국 상·하위 20% 가정의 소득 격차가 21배에 달하며 노동시장에서 지역별, 성별, 학력별 격차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중산(中山)대 사회과학조사센터는 6일 발표한 '2015년 중국노동력 동태(상황) 조사 보고서'를 통해 이런 결과를 공개했다고 CCTV가 7일 보도했다. 상위 20%인 가정의 평균수입은 15만3546위안(약 2794만 원)으로...(중략)...4년제대 졸업 이상 노동자의 연평균 임금은 5만8875위안

14) 홍정민, 「한국의 뉴스 번역 참여자 간 권력 관계를 반영한 게이트키퍼 수정 모델」 『번역학 연구』 제13권 4호, 2012년, 274쪽.

15) 원용진, 『텔레비전 비평론』,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5년, 239쪽.

으로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중략)...향후 5년 동안의 경제 계획안을 담은 13·5규획 건의안에는 저소득층 임금의 '뚜렷한' 인상과 중간 소득층 비중 증가에 힘쓸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공보를 인용해 관영 매체는 전했다...(중략)...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앞서 전문가들을 인용해 개혁 개방 이후 심화된 사회 불평등을 개선하고 소득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주창한 '중귀명(中國夢)'의 실현은 불평등 개선에 달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위의 기사는 CCTV의 보도를 소스로 삼아 기타 관영매체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까지 몇 가지 외신을 종합, 인용하여 작성되었다. 또한 특정 매체의 주장을 편집하여 '중국몽'에 대한 기자의 가치를 입힌 국제뉴스이다. 본 연구는 이렇게 특정한 프레임을 입히기 위해 외신들을 번역하여 하나의 기사로 종합한 기사는 번역뉴스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사실 국제적인 사건의 보도는 현장이나 취재원에 대한 접근이 다른 분야보다 어려워 취재 자체가 쉽지가 않아 기자들이 외신을 그대로 전재하거나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 등을 기사의 소스로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기 쉽다.<sup>16)</sup> 그럼에도 이들 뉴스는 기자가 판단한 가치에 따라 작성된 저널리즘적인 영역에 더욱 가깝다. 원문의 뉴스를 있는 그대로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에 기반 한 것이 아니라 특정사건의 뉴스적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번역을 목적으로 하는 뉴스가 있는데, 다음에 제시되는 인민일보 한국어판의 경우 원문의 뉴스를 번역하여 제시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최근 증가하고 있는 번역뉴스의 한 현상이라고 본다.

[인민일보 온라인 2015년 10월 28일]

최근 중국은 지역별로 2015년 1~3분기 소득 데이터가 연이어 공개되고 있다. 중신망(中新網)의 잠정 통계에 따르면, 10월 26일까지 전국 25개 성(省) 이상에서 올해 1~3분기 1인당 가처분소득을 발표했다. 이중 상하이(上海)와 베이징(北京)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37,568위안과 36,047위안을 각각 기록해 현재까지 1인당 가처분소득이 3만 위안을 넘

16) 김성혜 외, 위의 논문, 209쪽.

는 유일한 두 곳으로 집계되었다...(중략)...

국민 1인당 가처분소득 1위, 2위 지역은 상하이와 베이징으로 모두 3만 위안을 초과했다. 이중 상하이는 이전 3분기 1인당 가처분소득이 37,568위안, 베이징은 36,047위안을 기록해 현재까지 1인당 가처분소득이 3만 위안을 넘는 유일한 두 곳으로 집계되었다.

인민일보 온라인의 한국어 뉴스는 앞서의 문화일보처럼 비슷한 소스를 재구성하여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국제뉴스라기 보다는 원문에 기반을 두어 온전히 번역되는 뉴스라는 기능적 목표 하에 작성되었다. 즉 제시된 통계자료에 가치를 부여하기보다, 중국어 원문뉴스를 번역을 통해서 한국 독자들에게 제공한다는 기능적인 목적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 연구에서는 뉴스가 번역되어진다는 목적성을 지닌 뉴스를 번역뉴스의 연구 범주로 제한한다.

사실 뉴스번역은 최종 번역 텍스트의 완성과정에서 다른 일반적 번역들과 달리 편집자나 매체리는 특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 관계로 정호정<sup>17)</sup>은 뉴스문이 출발 텍스트를 그대로 사용하여 번역하기 보다는 텍스트 간의 병합이나 선택적 번역이 이루어지는 등 일반번역과 다른 양태를 보이기 때문에 뉴스번역문을 연구 자료로 사용할 경우 타당성 검증 면에서 특별히 유의해야함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번역뉴스의 연구 범주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범주의 초점을 기자의 뉴스적 가치판단에 의해 재생산된 국제뉴스인지, 원문 기사의 번역을 목적으로 하는 번역뉴스인지의 차이로 저널리즘과 번역연구를 가름하고자 한다.

## 2) 번역뉴스 변형과 가독성

원문뉴스의 번역을 목적으로 하는 번역뉴스의 경우에도 원문정보가 목표언어권에서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통이라는 커뮤니케이션적 기능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원문뉴스와는 일정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 뉴스번역에

17) 정호정, 「번역학 전문학술지의 발달과 최근 연구동향」 『통역과 번역』 제15권 1호, 2013년, 252쪽.



서 이루어지는 원문에 대한 변형은 지면과 공간적 한계라는 편집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원문뉴스가 포함하고 있는 정보를 소통시킨다는 커뮤니케이션 달성과 이를 통해 매체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에 근거하는 것이다. 편집 역시 뉴스를 접하는 독자들을 중심으로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는 소통의 맥락 안에 있다.

번역학 자체가 다양한 텍스트들이 번역되는 현상에 대한 일관된 법칙을 찾는 과정이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뉴스가 번역되는 과정에서 소통이라는 목적으로 원문이 변형되는 현상을 일반화하여 설명하려는 시도는 많았지만, 오늘날처럼 번역뉴스가 활성화 되지 않았던 관계로 일부사례를 직관적으로 관찰하여 제시된 소극적 접근들이 많았다.

최근에 뉴스번역의 관점을 정리한 논의<sup>18)</sup>에 기반 하여 이를 살펴보면, 우선 텍스트 유형분류에 기반 한 뉴스번역을 들 수 있다. 번역을 텍스트가 지니는 고유의 성격에 따라 정보적(informative), 표현적(expressive), 작용적(operative) 텍스트로 분류하고 각각의 성격에 따라 번역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텍스트 유형에 따른 번역인데, 라이스(Katharina Reiss)는 뉴스 텍스트가 정보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원문의 객관적 사실이 목표언어권 독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산문체로 번역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뉴스텍스트가 정보전달이라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텍스트 내부적으로는 호소적 기능과 표현적 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최근의 뉴스는 프레임 형성을 위한 호소적·표현적 텍스트들도 많아 국제뉴스의 정보흐름과 맞지 않는다. 특히 중국의 많은 연구자들은<sup>19)</sup> 번역뉴스를 두고 절대적으로 기능과 번역의 유형이 일대일로 단선적으로 대응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오히려 자국화(Domestication)<sup>20)</sup> 번역방법이 번역뉴스에 유용함을 역설하고 있다.

사실 중국의 연구자들과 매체들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뉴스번역의 방법은

18) 강수정, 「중국 번역뉴스의 가독성 적용에 관한 고찰」 『중국문화연구』 제25집, 2014년, 442-448쪽.

19) 중국학자들의 텍스트유형분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의 논문, 444쪽 참조.

20) 자국화 번역은 자신의 목표언어 및 문화적 가치에 맞추어 이국(異國) 텍스트를 축소하여 외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명하고 유창하고 '불가시성'의 번역을 의미한다.

기능주의적 편역이다. '편역(編譯)'은 중국의 매체들이 뉴스를 번역할 때 '번역문이 독자들에게 얼마나 수용 가능한 형태로 작성 되는가'라는 텍스트의 기능적 목적성(Skopos)에 기반 하여 원문의 내용과 형식을 변화시키는 편집의 과정을 거친 번역뉴스 작업을 말한다. 1차적으로 원문과 중국어의 언어구조가 다른데서 오는 언어적 정보의 조정, 2차적으로 문화적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조정, 마지막으로 뉴스자체가 이데올로기의 조정인 관계로 번역과정에서 정치적 시각의 차이를 조정해야 한다<sup>21)</sup>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sup>22)</sup>에 따르면 중국의 이해와 관련이 없는 사회·문화 등과 관련된 연성뉴스(Soft News)의 경우 이러한 편역의 개념이 설명력이 있었으나, 정치·외교 등 경성뉴스(Hard News)의 경우 중국의 입장이 반영된 아예 새로운 뉴스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밝혀져, 번역뉴스는 텍스트의 기능을 고려한 기능주의적 번역으로 설명되기보다는 저널리즘적 뉴스가치에 기반 한 이데올로기적 접근이 중국매체환경에서 더욱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뉴스번역에 이데올로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뉴스에 내포되어 있는 프레임에 기반 한 구조적 결정요인이 번역뉴스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됨을 의미한다. 국내의 번역뉴스 연구들은 같은 원문의 뉴스라도 매체의 입장에 따라 다른 내용으로 번역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반다이크(van Dijk)를 비롯한 연구자들의 담론구조분석 프레임을 활용하여 뉴스담론의 의미론적 구조에 번역뉴스가 영향을 받고 있음을 밝혀내고 있다.<sup>23)</sup> 문제는 이 프레임 분석이 주로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뉴스적 가치와 보도의 입장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뉴스번역이 최종 번역텍스트의 완성과정에서 다른 번역과 달리 편집자나 매체규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텍스트가 변형되고, 결국 저널리즘과 번역학의 학제적 갈림길에서 보면 뉴스의 가치를 연구하는 저널리즘적 입장에서 번역뉴스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다는 것이고, 본 연구의 서론에서 제기한 번역뉴스의 범주와 관련되어서도 비슷한 문제인식에 기반 하게 되는 것이다.

번역학적인 접근에서는 뉴스의 번역과정을 '뉴스원작자-뉴스원문텍스트-번역

21) 陳明瑤, 「淺論英語新聞編譯加工」 『中國翻譯』 22(5), 33쪽.

22) 강수정, 「방송뉴스 번역양상에 관한 연구」 『통번역학연구』 제17권 1호, 2013년, 21-23쪽.

23) 박소영(2007), 송연석(2011), 김기영(2013) 등의 논문 참조

자-번역텍스트-독자'로 전달되는 일종의 시스템으로 규정한다. 뉴스를 생산하는 기자와 번역사, 편집자는 번역뉴스를 받아들이는 독자들이 번역뉴스가 제시하는 정보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게끔 문체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번역뉴스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고, 특히 번역사는 이 과정에서 원문의 저널리즘적 가치가 독자들에게 수용될 수 있도록 정보전달 시스템 속에서 번역뉴스 텍스트가 포함하고 있는 정보 전달을 위한 '가독성(Readability)'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바탕이다. 다시 말해 뉴스번역이 독자의 이해를 위한 소통적 특성을 가지고 변형되는 지점이 '가독성'의 특징이라는 것이다.

번역학에서 '충실성(faithfulness)'과 '가독성(Readability)'의 개념은 번역비평에서 번역의 질을 평가하는 기본 범주로 제시되고 있다. 이은숙<sup>24)</sup>은 '충실성' 혹은 '충실한 번역'을 목표언어의 문법구조에 적절하도록 번역하면서 원천텍스트의 정확한 의미를 재현하려는 번역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가독성'은 번역문 중심의 번역방법으로 목표언어의 적절성과 자연성이 원문과 저자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번역문이 원문의 구조나 문체와는 일치하되 읽기 쉽고 매끄러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가독성의 개념이 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뉴스번역의 논의들과 유사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 가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번역뉴스를 설명하는 데에 유용할 것이라 판단한다.

가독성에 대한 보다 간결한 접근으로, 이은숙은 가독성의 구성요소로 표현과 문장의 길이가 적절한지의 적절성(appropriateness), 독자들이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자국화(domestication), 그리고 번역자가 개입하는 사실을 모르도록 하는 번역자 불가시성(invisibility)을 제시하기도 한다. 번역뉴스 현상에 적합한 번역 방식으로 멩셴잉<sup>25)</sup>은 번역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바꾸기-추가하기-생략하기-다듬기'의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최근 비엘사와 바스넷이 뉴스번역가에게 요구되는 텍스트 개입의 유형을 구체

24) 이은숙, 「문학번역 평가의 문제: 충실성과 가독성」, 『통역과 번역』 제10권 2호, 2008년, 85쪽.

25) 孟憲英, 「譯文可讀性的翻譯策略」 『沈陽師範大學學報』 2012(1), 沈陽, 沈陽師範大學, 2012, 127쪽.

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원문뉴스가 번역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수정되는 방식을 제시<sup>26)</sup>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뉴스번역이 원문에의 변형을 가져오는 이유가 가독성에 있으므로 뉴스가 수정되는 요인으로 번역뉴스 현상에 적용 가능한 가독성의 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비엘사와 바스넷(2009)이 제시하고 있는 가독성 적용 유형은 헤드라인(표제)와 리드의 변형, 정보의 축소와 요약, 불필요한 정보의 제거, 주요배경정보의 추가, 단락순서의 변경, 이렇게 5가지 유형이다.

첫째, 헤드라인과 리드의 변형이다. 매일경제 용어사전에 따르면 헤드라인은 특정기사가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기사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책이나 논문제목 같은 추상성을 배제해야하고, 독자들이 헤드라인만 보아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도록 구체성을 확보해야 한다. 대개의 한국기사의 헤드라인은 간결하며 명사화된 형태를 많이 띠고 있다. 그러나 중국어는 한자 자체가 가지는 간결함과 글자마다 내포하는 뜻이 풍부하다는 특성으로 인해 같은 크기의 공간이 주어졌을 때, 타 언어보다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어 중국 신문기사의 헤드라인은 보다 구체적이며 정보량이 많은 것을 특징으로 한다.<sup>27)</sup> 중국매체의 원문 뉴스 헤드라인은 이 같은 특성에 따라 한국과 같은 간결한 명사화가 아닌 하나의 완전한 문장의 형태를 갖추어 비교적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한국어로 제공되는 번역뉴스들의 헤드라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번역뉴스 가독성양상을 파악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둘째, 번역뉴스에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정보의 축소다. 장민호<sup>28)</sup>는 문체적으로 보면 어휘의 음절수가 적어야, 즉 짧아야 가독성이 좋아진다고 보는데, 번역뉴스에서는 원문의 정보량이 많을 경우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개의 쉽고 짧은 문장으로 번역해야함을 의미한다. 또한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번역문의 독자들과 관련성이 낮은 정보를 압축적으로 요약하기도 한다.

셋째, 정보의 삭제이다. 비엘사와 바스넷이 제시한 삭제양상을 참고해 보면, 번

26) 비엘사와 바스넷, 위의 책, 107쪽

27) 劉其中, 『新聞翻譯教程』,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4년, 126쪽.

28) 장민호, 「영화번역에서 텍스트 축소와 메시지의 변화」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9(1), 2007, 8쪽.

역뉴스에서는 목표언어권에 이미 알려져 있어 설명이 필요 없거나, 지리적·문화적으로 떨어져 있어 구태여 상세하게 언급하면 오히려 가독성이 떨어지는 경우에 삭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목표언어권의 독자들에게 무의미하거나 관련성이 낮은 정보들, 혹은 언어구조의 차이로 인해 목표언어의 문장구조상 필요 없거나 중복되는 정보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때에 광범위한 삭제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강수정<sup>29)</sup>은 중국매체들이 영어권 기사를 중국어로 편역할 때 중국매체의 기사작성 관습에 따라, 혹은 이데올로기적 입장의 확대에 따라 광범위한 삭제 현상이 있음을 확인한 바 있는데, 반대로 중·한 번역뉴스의 경우 그 양상이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정보의 추가이다. '축소', '삭제'와 같이 정보의 양을 줄이면서 가독성을 높이는 것과 반대로 '추가'의 형태로도 가독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 보도되는 사건에 대한 배경지식에 차이가 있는 경우, 뉴스 번역자가 목표언어권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배경지식에 대한 부연설명을 덧붙여야 하고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문화소나 문화적 연상 작용에 차이가 나는 경우 부연설명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매체에서는 정치적 입장에서 기인하는 정보의 추가 현상도 눈에 띄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sup>30)</sup>

다섯째, 문장구조의 변경이다. 비엘사와 바스넷에 따르면 번역뉴스에서는 새로운 맥락에서 정보 관련성과 해당 매체에서 사용하는 고유의 문체에 따라 문단의 순서를 바꾸기도 한다. 즉 언어 간 표현습관에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언어권 독자의 읽기 습관에 맞추어 원문의 문장을 적절하게 조정하거나 변경하는 사례가 있는데, 문체와 문장자체가 변화할 수도 있고 목표언어권에 맞지 않는 표현의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

국제뉴스가 특정사건의 뉴스적 가치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면, 번역뉴스는 독자들에게 원문뉴스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원문뉴스는 '헤드라인과 리드의 변경-정보의 축소-삭제-추가-문장구조의 변경'을 통해 번역뉴스로 전환되어 독자들이 그 정보를 효과적으로 취할 수 있게

29) 강수정(2013), 위의 논문, 16쪽.

30) 강수정(2013), 위의 논문, 17쪽.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한국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서비스 되고 있는 중국뉴스 번역매체인 인민일보 온라인 한국어판의 번역뉴스 양상을 분석하여 번역뉴스의 가독성을 높이는 유형을 제시하는 것이다.

### 3. 인민일보 온라인 한국어판의 가독성 분석

#### 1) 분석의 방법

인민일보 온라인(人民網)은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1997년부터 제공하기 시작한 온라인서비스로, 한국어판(kr.people.com.cn)은 2011년 9월 27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중국 소식에 관심이 있는 한국매체와 한국어 독자들을 대상으로 중국뉴스를 한국어로 번역해 제공하고 있다. 인민일보 온라인은 한국어 외에 영어, 일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독어, 포르투갈어 등 총 9개 언어로 번역뉴스를 서비스 한다. 인민일보 온라인 한국어판에서 제공되는 뉴스는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과학, 국제, 연예, 스포츠, 중한교류, 외교부 브리핑, 오피니언'으로 나뉘며, 각 섹션별로 주말(토, 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인민일보의 기사를 직접 번역해서 제공하는 형태를 보인다.

본 연구를 위해 2015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 간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인민일보를 원문으로 하는 뉴스를 위주로 번역뉴스를 선정하고, 이 가운데 한국의 언론에서도 해당 번역뉴스와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다룬 것들을 선별하였다. 특정 주제의 뉴스로 연구대상을 한정된 것은 중국의 기사 중에서 한국독자들에게 전달할 가치가 있는 뉴스들이 번역뉴스의 대상이 되는 점과 이들 뉴스 가운데 한국의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이어야 양국의 기사문과 번역문을 두 단계에 걸쳐 대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민일보를 출처로 하는 번역뉴스로 대상을 좁힌 것은 본 사이트에서 원문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지 않은 번역문이

많아서 중국어 원문뉴스와 인민일보 온라인 한국어판에서 제공하는 번역뉴스를 대조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원문 출처가 명확한 인민일보를 출처로 하는 기사로 분석대상을 한정했다.<sup>31)</sup> 또한 인민일보 온라인 한국어판에 적용되는 가독성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원문에 대한 한국 언론사의 국제뉴스 기사와 중국에서 제공한 번역뉴스를 대조해 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위의 선별된 기사들 중에서 한국기사가 있는 번역뉴스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인민일보 온라인 한국어판에서 ‘창어4호 발사’, ‘스모그’,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수출’, ‘한중FTA 발효’, ‘선전 산사태’의 5가지 주제에 관한 중국 원문 기사(이하 ‘ST’)와 인민일보 온라인 한국어판이 제공하는 한글번역기사(이하 ‘TT’)를 찾아 번역 양상을 대조 분석하였고, 이어 비슷한 내용을 다룬 한국의 관련 기사를 검색하여 TT와 비교하였다. 이렇게 두 단계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번역양상 및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TT가 ST를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변경한 경우 변화양상을 파악하기 쉽도록 ST 아래에 괄호를 사용해 원문을 직역해 두었다.

## 2) 한국어판 번역뉴스의 변형 유형

### (1) 헤드라인 및 리드의 변경

한자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같은 크기의 공간이 주어졌을 때 중국어는 다른 언어보다 풍부한 내용을 담을 수 있어 중국 신문기사의 헤드라인은 보다 구체적이며 정보량이 많은 것을 특징으로 한다. ST의 헤드라인은 하나의 완전한 문장의 형태를 갖추어 비교적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데, TT는 이를 한국의 헤드라인 형식에 맞춰 간결하고 압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변경하였다.

31) 인민일보 온라인 한국어판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기사들은 인민일보가 출처일 경우에만 해당 기사가 실린 날짜와 지면을 밝혔으며 기타 출처에 대해서는 날짜와 지면에 대한 언급 없이 단순히 원문출처 ‘환구망’, 원문출처 ‘신화통신사’ 등으로 언론사나 통신사 명만을 밝힌 관계로 해당 원문뉴스의 검색이 어려웠다.

[헤드라인의 변경 1]

ST1: 北京首發紅色預警應對嚴重霧霾

(베이징 사상 첫 적색경보로 심각한 스모그에 대응하다)

TT1: 베이징 스모그 심각...사상 첫 적색경보 발령

[헤드라인의 변경 2]

ST2: 習近平對廣東深圳市恒泰裕工業園山体滑坡灾害搶險救援工作作出重要指示, 要求全力組織搜救 盡最大努力減少人員傷亡. 李克強就搶險救援工作作出批示

(시진핑은 광둥 선전시 형타이위 산업단지 산사태 구조작업에 대해 전력을 다한 구조작업을 통해 최대한 사상자 수를 줄이려는 중요한 지시를 내렸다. 리커창이 구조작업을 지시했다.)

TT2: 시진핑, 선전 산사태 “사상자 감소에 최선 다해야”

헤럴드경제: 중국 선전 산사태 공중 촬영 모습 ‘처참’...시진핑 “최선 다하라” 지시

특히 2번 사례의 경우 중대한 국가 재난상황에 대한 기사이다보니 헤드라인이 이례적으로 긴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그대로 번역한다면 기사의 본문과 같아 한국의 헤드라인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따라서 TT는 한국 독자에게 불필요한 정보를 과감히 삭제해 짧고 요약된 헤드라인을 만들었는데 한국기사의 헤드라인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헤드라인의 변경 양상은 인민일보 한국어판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가독성 향상을 위한 현상으로, 원문뉴스와 비교하여 가장 특징적인 번역작업이었다. 반면 헤드라인에 이은 리드(Lead)의 경우는 헤드라인과는 완전히 반대적 양상이 보였다. 신문기사에서 리드는 해당 뉴스의 핵심 내용이 서두에 요약된 형태로, 독자들이 기사 전체를 읽지 않더라도 리드만으로 전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게 하는 효과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 익숙하지 않은 중국식 리드를 삭제하고 제목과 유사한 핵심 내용을 담아 짧게 새로운 리드를 생성한 사례는 아래의 한 가지 뿐이었다.



[새로운 리드의 생성]

ST3: “嚴重霧霾將襲北京!”不少外媒7日發出這樣的驚嘆。

(‘심각한 스모그 베이징 강타!’

많은 해외언론들이 7일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TT3: 베이징시가 처음으로 스모그 적색경보를 발령했다.

리드는 기사의 맨 처음에 위치함으로써 기사의 뉴스성을 강조한다. 또한 기사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람, 장소, 사건 등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준다는 면에서 기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본 연구에서 검토한 33개의 인민일보 온라인의 번역뉴스 가운데 리드를 새롭게 생성한 사례는 위의 한 건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인민일보 온라인 한국어판 대부분의 경우 아래의 사례와 같이 중국 기사의 리드를 변형 없이 그대로 한국어로 단어 대 단어를 대응한 축자적 번역으로 전달하고 있었다.

[리드의 축자적 번역]

ST4: 11月30日, 國防科工局組織召開探月工程重大專項領導小組第十四次會議, 審議通過嫦娥四號任務實施方案調整報告、研制總要求及後續總體研制計劃, 我國嫦娥四號任務將實現世界首次月球背面軟著陸。

TT4: 국방과기공업국(國防科技工業局)이 최근 달 탐사공정 특별 영도소조(領導小組) 제14차 회의를 소집해 창어(嫦娥)4호 임무 시행안 조정 보고서와 연구제작 총요구 및 후속 총체 연구제작 계획을 심의 통과시켰다. 따라서 창어4호는 세계 최초로 달 뒷면 연착륙을 시도하게 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리드) 중국이 세계 최초로 달의 뒷면 탐사를 추진한다고 중국 인민일보(人民日報)가 3일 보도했다.

(본문) 중국국방과학기술공업국은 달 탐사 프로젝트에 대한 제14차 영도소조 회의에서 앞으로 발사될 달 탐사선 창어(嫦娥) 4호를 달 뒷면에 착륙시켜 달 뒷면을 탐사하게 하는 임무를 공식적으로 부여했다. 신문은 창어 4호의 시도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위 사례는 대상독자가 중국인에서 한국인으로 변경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중국기사의 리드를 전혀 삭제, 추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독자적 번역을 한 결과, TT가 한국인 독자에게 본문의 내용을 알려주는 리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반면 연합뉴스는 한 줄짜리 리드를 간결하게 새로 작성하였으며, 내용이 지나치게 많았던 ST의 리드를 본문으로 옮기면서 ST와 같은 독자적 번역이 아닌 편역을 통해 가독성을 높였다.

헤드라인과 리드의 번역 양상을 보면, 헤드라인은 대부분 변경되었으나 리드는 조정되지 않았다. 리드는 기사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요약 정리해서 나타내는 부분으로 짧게 작성되어야 하며 뉴스의 핵심을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 특히 기존 연구<sup>32)</sup>에 따르면 중국매체들은 한국의 뉴스를 중국어로 번역하면서 리드부분에 있어 한국뉴스의 리드를 활용해 일부 내용을 조정하거나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해 새로 만들기도 하였고 원문과는 별개로 완전히 새로운 리드를 생성하기도 하는 등 대폭적인 조정이 있었다. 하지만 인민일보 온라인의 중·한 번역뉴스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양상을 찾아보기 힘들어서 뉴스의 가독성이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 정보의 축소

번역뉴스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정보의 축소이다. 원문 뉴스를 한정된 지면에 포함하거나 목표언어권 독자들에게 관련이 없는 긴 기사를 줄이기 위해서 인민일보 온라인에서는 날짜나 시간 표기를 명시화 하거나 한국어 독자들에게 필요 없는 정보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번역이 진행되었다.

[날짜와 시간 표기의 명시화]

ST5: 当天上午, 韓國原產的2600吨液体硫磺在青島海關申報進口...(생략)...

TT5: 20일 오전, 칭다오(青島)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한 2600톤의 한국산 액체 유황이...(생략)...

32) 강수정(2013), 위의 논문, 14-16쪽.

‘당일 오전’으로 표현된 부분이 번역문에서는 20일 오전으로 명시화 되었다.

[구체적인 정보의 축소]

ST6: 法新社称, 北京市空气重污染应急指挥部7日零时启动空气重污染  
橙色预警, 当天18时30分将预警等级提升为红色。

TT6: 베이징시공기중오염응급지휘부는 7일 18시를 기해 스모그 경보  
등급을 2급(주황색)에서 최고 등급(적색)으로 올렸다.

ST에 ‘당일 18시 30분’으로 정확한 시간이 명기된 것을 TT에서는 ‘7일 18시’로  
날짜를 명시화하는 동시에 자세한 언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시간은 18시로 축  
소해 전달하였다.

위의 간단한 몇 가지 사례에서 보듯 인민일보 온라인 한국어판의 번역뉴스에서  
는 가독성 향상을 위해 단순한 날짜나 시간을 축소하거나 명시적으로 변경하는  
것 외에 별다른 축소 양상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즉 가독성 향상을 위한 원문축소  
현상 역시 확인할 수 없었다.

### (3) 정보의 삭제

정보의 삭제는 중국매체들이 해외뉴스를 번역 보도할 때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는 번역전략 중의 하나이다. 중국매체들은 외국의 기사를 중국어로 번역하는 과  
정에서 매체의 기사작성 관습에 따라, 또는 정치적 입장의 차이에 따라 광범위하  
게 삭제를 하고 있는데, 인민일보 한국어판에서도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삭제 현  
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불필요한 내용의 삭제]

ST7: 中韓中澳自貿協定正式生效 首票中韓自貿協定項下進出口貨物順  
利通關

(중-한, 중-호주 FTA 정식발효/ 중한FTA 체제 하의 첫 수출입  
화물 순조롭게 통관)

TT7: 중한 FTA 정식 발효...첫 수출입 화물 통관

ST는 중-한, 중-호주 FTA의 동시발효를 알리고 있으나 TT는 중-호주 관련 소식은 삭제하고 한-중 FTA 발효에 관한 내용만을 전하고 있다. 대상 독자인 한국인에게 중-호주 FTA 관련 내용은 불필요한 정보라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인용 출처의 삭제]

ST8: 法新社称, 北京市空气重污染应急指挥部7日零时启动空气重污染橙色预警 当天18时30分将预警等级提升为红色。

(AFP 통신에 따르면, 베이징시 공기오염 방제지휘부가 7일 0시에 발령했던 공기오염 주황색 경보를 같은 날 18시30분 적색경보로 격상했다.)

TT8: 베이징시공기중오염응급지휘부는 7일 18시를 기해 스모그 경보 등급을 2급(주황색)에서 최고 등급(적색)으로 올렸다.

ST의 경우 AFP를 비롯한 세계 각국 언론의 스모그 관련 보도를 인용해 기사를 쓰고 있었지만 TT에서는 인용출처를 모두 삭제하고 사실만을 발췌해 번역했다.

위의 삭제 양상 외에 불필요한 단락을 통편집한 사례도 볼 수 있었는데, 창어 4호의 발사와 관련된 총 6개 단락의 비교적 긴 중국어 원문 기사의 경우, 회의 개최 사실과 창어 4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1단락과 5단락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단락이 통째로 삭제되었다. 통편집된 2,3,4,6 단락의 경우 중국 국내에서만 유의미할 수 있는 회의에 참석한 주요인사와 그 직급, 선언적 의미 등으로 그대로 전달할 경우 한국독자들에게 오히려 가독성을 떨어트리는 요소가 되기에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 (4) 정보의 추가

‘축소’, ‘삭제’와 같이 정보의 양을 줄이면서 가독성을 높이는 것과 반대로 ‘추가’의 형태로도 가독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 앞서 가독성 논의에서 확인했듯이, 목표 독자가 한국어권으로 달라지므로 새로운 맥락에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가적인 배경지식을 추가하는 것은 필수적인 번역전략이다. 인민일보 온라인의 번역 뉴스에서도 배경지식의 차이에서 오는 정보의 추가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배경지식의 추가]

ST9: 嫦娥4号將在月球背面軟着陸 系世界首次

(창어4호가 달 뒷면에 연착륙 할 것이며 이는 세계 최초이다)

TT9: 달 탐사선 창어4호, 세계 최초 달 뒷면 연착륙 시도

창어4호 앞에 ‘달 탐사선’을 추가해 ‘창어4호’에 대한 사전 지식이 충분한 중국 독자에 비해 그렇지 못한 한국독자들의 가독성을 배려하였다.

[부연설명]

ST10: 法新社称, 北京市空气重污染应急指挥部7日零時啓動空气重污染橙色預警, 当天18時30分將預警等級提升爲紅色。

(AFP 통신에 따르면, 베이징시 공기오염방제지휘부가 7일 0시 발령했던 공기오염 주황색 경보를 같은 날 18시30분 적색경보로 올렸다.)

TT10: 베이징시공기중오염응급지휘부는 7일 18시를 기해 스모그 경보등급을 2급(주황색)에서 최고 등급(적색)으로 올려...(중략)...라고 발표했다.

ST가 ‘주황색 경보를 적색경보로 격상했다’고 간략히 표현한 것을 TT는 각 경보에 부연설명을 달아 ‘2급(주황색)’, ‘최고등급(적색)’으로 번역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중국의 정보체계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배경 지식이 추가된 것이다.

[형식적 부등성을 갖는 문화소의 자국화 번역]

ST11: 南海航行自由沒有問題, 美方不要揣着明白裝糊涂

TT11: “남중국해 항행자유 문제없다. 미국 알면서 모르는 체 하지 마라”

송징(宋靜)<sup>33)</sup>은 뉴스의 번역에서 ‘언어적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자국화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하며 자원보(賈文波)<sup>34)</sup>는 ‘뉴스는 자국화 번역을

33) 宋靜, 「文本功能与新聞英語翻譯中的歸化异化」 『湖南科技學院學報』 제30권9호, 2009년, 160-163쪽.

해서 독자의 이해와 수용이 용이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사례를 보면, 중국에서 '南海'로 불리는 남중국해를 한국독자들의 가독성을 고려해 자국화 하여 번역한 것을 볼 수 있다.

#### (5) 문장구조의 변경

언어 간 표현습관에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뉴스번역 시 목표언어권 독자의 읽기 습관에 맞추어 원문의 문장을 적절하게 조정하거나 변경하는데, 인민일보 온라인에서도 술어를 관형어로 변경하는 등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술어를 관형어로 변경]

ST12: 韓國原產的2600吨液体硫磺在青島海關申報進口, 并享受中韩自貿協定關稅優惠。

(한국산 2600톤의 액체유황이 청다오 해관에 수입 신고를 했으며 중한FTA 관세혜택을 받았다.)

TT12: 청다오(青島)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한 2600톤의 한국산 액체 유황이 중한FTA 발효 후 첫 화물로 관세 우대 혜택을 받았다.

위와 같은 문장구조의 변경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지만 발견 건수도 미미하였음은 물론, 한-중 번역뉴스 등의 연구<sup>35)</sup>에서 눈에 띄게 보였던 문단 자체가 역으로 바뀌어 전체 텍스트의 구조가 달라지는 등과 같은 양상은 이번 연구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기본적으로 인민일보 온라인 한국어판에서 제공하는 기사들은 충실한 번역 혹은 독자적 번역에 중점을 둔 관계로 기존 연구들에서 살펴보았던 중국의 매체가 한국 기사를 중국어로 번역해 소개하면서 중국 언론의 관습에 맞지 않는 부분을 과감하게 변경하는 것과 같은 양상은 찾아볼 수 없었다.

34) 賈文波, 「文本類型的翻譯策略導向—異化, 歸化討論后的思考」『上海科技翻譯』, 2004(3), 6-11쪽.

35) 강수정 (2011) 「중국 뉴스매체의 한국뉴스 편역보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중국의 외신번역 일간지인 『참고소식』의 번역양상을 소개하고 있으며, (2013) 「방송뉴스 번역 양상에 관한 연구」에서는 CCTV의 뉴스프로그램인 '금일아주'의 한국뉴스 번역방송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 3) 분석의 결과

번역 양상의 분석 결과, 인민일보 온라인 한국어판의 중·한 번역뉴스들에서 일부 축소, 삭제, 추가, 문장구조의 변경 등 가독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볼 수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하는 CCTV나 참고소식<sup>36)</sup> 등 중국의 기타 매체들에서 제공하는 한·중 번역뉴스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가독성 향상을 위한 조정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인민일보의 내부 정책적 요구이거나, 인민일보가 중국의 매체이다 보니 한국 언론의 장르적 관습에 익숙하지 않거나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야기된 문제일 수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일관된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1) 지나친 축자적 번역의 문제

인민일보 온라인 한국어판의 번역뉴스들은 기본적으로 원문을 글자 그대로 옮겨놓은 축자적 번역이 대부분이었다. 충실한 번역을 위해서였다고 이해하기에는 지나치다 싶을 만큼 글자만 전환한 번역들이 자주 보인다.

[문장 전체의 축자적 번역]

ST13: 11月30日, 國防科工局組織召開探月工程重大專項領導小組第十四次會議, 審議通過嫦娥四號任務實施方案調整報告、研制總要求及後續總體研制計劃, 我國嫦娥四號任務將實現世界首次月球背面軟著陸。

TT13: 국방과학기술공업국(國防科技工業局)이 최근 달 탐사공정 특별 영도소조(領導小組) 제14차 회의를 소집해 창어(嫦娥)4호 임무 시행안 조정 보고서와 연구제작 총요구 및 후속 총체 연구제작 계획을 심의 통과시켰다. 따라서 창어4호는 세계 최초로 달 뒷면 연착륙을 시도하게 될 예정이다.

밑줄 친 부분을 보면, 중국어 원문의 한자를 그대로 한글로 옮겨놓은 결과 한국

36) 신화통신사에서 발간하는 일간지로 '환구시보(環球時報)'와 함께 중국대륙에서 합법적으로 직접 외신보도를 실을 수 있는 유일한 신문.

독자들은 TT를 통해서 거의 의미과약이 곤란하다. 설사 충실하게 번역하라는 지침이 있었다 하더라도 TT는 위와 같은 축자역인 아닌 적어도 한국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창어4호의 임무시행조정안과 제작요강, 후속 연구계획 등이 31일 국방과 학기기술공업국이 개최한 달 탐사 프로젝트에 관한 제14차 TFFT 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중국은 세계 최초로 달 뒷면을 탐사할 수 있게 되었다’ 정도로 번역되어야 할 것이다.

[고유명사의 축자적 번역]

ST14: 北京市空气重污染應急指揮部7日零時啓動空气重污染橙色預警, 当天18時30分將預警等級提升爲紅色.

TT14: 베이징시공기중오염응급지휘부는 7일 18시를 기해 스모그 경보등급을 2급(주황색)에서 최고 등급(적색)으로 올렸다.

조선일보: 베이징시 당국은 이날 오후 6시(현지 시각) “8일 오후 7시부터 10일 정오까지 시 전역에 심각한 스모그가 예상된다”며 “스모그 경보 단계를 주황색에서 적색으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한-중 번역에서 고유명사의 경우 대개는 한자어의 사용이 보편적이지만, 문제는 한국어 독자의 가독성이다. ‘北京市空气重污染應急指揮部’를 보면, 重污染(중오염)이라는 것은 심각한 오염을 의미하며 應急는 ‘방제’를 의미한다. 서로의 기관명과 지휘체계를 공유하는 국제회의장이 아닌 뉴스기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고유명사를 꼭 써야 한다면 ‘베이징시 공기오염방제지휘부’라고 조정해 가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기사에서와 같이 ‘베이징시 당국’이라는 상위의 의미장으로 대체하는 것도 방법이다.

## (2) 한국어독자의 가독성을 고려하지 않은 번역

뉴스번역에서는 독자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목표언어 문화권에서는 상세하게 언급할 필요가 없거나 언급하더라도 무의미거나 관련성이 낮은 불필요한 정보는 삭제 또는 조정하는 번역전략을 채택한다. 이러한 뉴스의 편역에 대해서 우즈



웬37) 역시 '보다 높은 층위에서의 충실성을 고려해 추가, 삭제, 개작, 해설 등이 가능하며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인민일보 온라인 한국어판의 번역뉴스에서는 상당부분 이러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부 지명의 축소나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번역]

ST15: 12月20日11時40分許, 廣東深圳市光明新區鳳凰社區恒泰裕工業園發生山体滑坡, 附近西气東輸管道發生爆炸。

TT15: 12월 20일 11시 40분경, 광둥(廣東)성 선전(深圳)시 광밍신구(光明新區) 평황사구(鳳凰社區) 헝타이위(恒泰裕) 산업단지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부근 천연가스관이 폭발했다.

해럴드경제: 중국 남부 선전의 한 공단 부근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TT는 한국인 독자에게 불필요한 정보인 상세 지명을 그대로 사용해 가독성을 저해하고 있다. 지리적,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는 경우, 지명 등은 보다 상위의 단위로 이해되곤 한다. 예를 들어 2008년에 발생한 중국의 쓰촨대지진을 중국에서는 쓰촨성에 속한 윈촨(汶川)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이었기 때문에 '윈촨대지진(汶川大地震)'이라고 칭한다. 따라서 TT가 해당 지명을 사례의 한국기사와 같이 '중국 선전의 한 공단'으로 번역하거나 '중국 선전의 헝타이위 공단' 등으로 축소한다면 가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과도한 직책이나 직함의 나열]

ST16: 中共中央總書記、國家主席、中央軍委主席習近平立即作出重要指示

TT16: 시진핑(習近平) 중공중앙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사고소식을 접한 후 즉각 중요 지시를 내렸다.

한경: 사고 소식에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며 즉각 구조 지시를 내렸으나...(생략)...

비슷한 예로 중국의 지도층에 붙는 다양한 직함과 직책의 번역 문제가 있다.

37) 吳自選, 「德國功能派理論與CNN新聞短片英譯」 『中國科技翻譯』, 2005(1), 4-7쪽.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은 중국 국내에서의 다양한 직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시진핑 중국국가주석’ 또는 ‘시진핑 주석’으로 인식된다. 이 외에 붙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등의 직책은 한국의 일반 독자들에게는 혼란만 가중시킬 뿐 무의미한 정보이므로 가독성을 위한 삭제 필요하다.

[과도한 수식어와 형용사의 번역]

ST17: 中共中央總書記、國家主席、中央軍委主席習近平立即作出重要指示

TT17: 시진핑(習近平) 중공중앙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사고 소식을 접한 후 즉각 중요 지시를 내렸다.

헤럴드경제: 시진핑 국가주석은 사고 소식을 접한 후...(중략)...고 말했다.

중국의 영자지인 『북경주보(Beijing Review)』의 사장 리아팡<sup>38)</sup>은 중국어를 영문으로 하는 기사를 영어로 번역해 실는 과정에서 중국어와 영어의 컨텍스트적 차이를 인지하여 과유불급(過猶不及)으로 인한 커뮤니케이션 효과 반감을 피해야 한다고 말한다. 중국어에서는, 특히 정치적 표현이나 언사에 과도한 수식어와 형용사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곧이곧대로 번역할 경우 리아팡이 말하는 과유불급의 상황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국가원수가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다(發表重要演講)’거나 ‘직접 나서 대량의 힘겨운 작업에 직접 참여했다(親自出面做了大量艱苦細致的工作)’ 등의 표현들을 말 그대로 축자적으로 번역할 경우 한국을 비롯한 외국의 독자들에게는 가독성과 수용성이 모두 떨어진다. 고위층의 해당 행위가 중요한 것인지, 대량의 작업인지, 힘든 일이었는지는 독자가 판단할 일이지, 기사를 통해 독자에게 그렇게 느끼도록 강요하는 표현은 중국어에서와는 달리 영어나 한국어에서는 생경하고 가독성이 떨어짐은 물론 심할 경우 오히려 풍자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한다. 리아팡은 번역뉴스를 보도하는 기준으로 ‘뉴스기사를 중-영 번역할 때 중국어 표현에 들어있는 과도한 형용사들을 모두 내려놓고 서양의

38) 李雅芳, 「如何實現國際傳播中的“無障礙”閱讀—以北京周報社的播傳播實踐為例」『中國翻譯』, 2015(5), 11쪽.

뉴스쓰기 관습에 맞춰 다시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한국어 번역뉴스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3) 번역사 자질의 문제

전문번역사들은 번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지식과 기술인 번역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단순한 이중언어능력만이 아닌 배경지식, 문화적 지식, 도구적 지식, 번역전략 지식 등을 고루 갖춰 번역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번역사의 자질과도 관계가 있다.

[번역의 일관성 문제]

ST18: 有报道称, 美軍將再次派軍艦到中國南沙島礁附近進行所謂“航行自由”行動。

TT18: 미군이 중국 남사군도 부근에 또 군함을 파견해 이른바 '항행자유' 행동을 감행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다.

ST19: 美軍艦機擅自進入中國南沙群島有關島礁鄰近海空域進行挑釁... (생략)...

TT19: 미군의 군함은 중국 남사군도 관련 암초 부근 영해에 함부로 들어와 도발을 감행해...(생략)...

고유명사의 번역은 일반적으로 자국화와 이국화 전략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데, 한-중 번역에서는 다른 언어조합에서와는 달리 양국이 모두 한자문화권이다 보니 생기는 '한자어' 사용의 문제가 존재한다. 한국의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중국 원음을 따르는 음역에 기반을 둔 번역을 권장하지만 실상 중국의 지명과 인명 등 고유명사의 경우 현실에서는 여전히 두 가지가 혼용되고 있으며, 실제 번역현장에서 역시 번역 의뢰자의 습관에 따라 어느 한쪽으로 번역할 것을 요구받기도 한다. 따라서 北京은 '베이징'으로도, '북경'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 사례의 '南沙群島'는 따라서 한자어를 사용한 '남사군도'로도, 중국어의 음을 따른 '난사군도'로도 번역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배경지식이 충분치 못한 독자들의 오독의 가능성을

고려해 하나의 텍스트 안에 두 가지 번역방법을 혼용해서는 안 된다. 南沙群島의 경우 한자어와 중국어 발음이 비슷하여 오해의 소지가 적을 수는 있었겠지만 많은 경우 한자어발음과 중국어 발음에는 차이가 있다. 이 부분의 번역은 어쩌면 번역사의 부주의나 자질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인민일보 온라인 한국어판의 번역뉴스에 가독성 향상 요인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헤드라인의 변경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헤드라인만이 이 번역뉴스들이 '뉴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번역과정인 정보의 축소-추가-삭제-문장구조의 변경 등은 부분적으로 확인되었지만 전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고 있었다. 본문을 요약해서 알려주어야 하는 리드부분의 변경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 한국독자들이 기사의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기 힘들었고, 중국 기사에 자주 나타나는 과도한 형용사와 직책의 나열, 복문의 중복 등의 현상들이 거의 수정되거나 변경되지 않아 낯선 중국식의 기사로 인지되어 기사가 말하고자 하는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특정한 정책적 기조로 이국화 글쓰기를 강조하고 있는 매체의 규범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단어 대 단어로 번역되는 현상으로 보아서는 단순한 충실성 강조 정책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매체들에는 뉴스를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주요한 사실을 서두에 요약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기술하는 소위 역피라미드 방식에 맞는 번역, 이를 위해 간결하고 구체적인 문체적 특징들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장르 관습에 기반 한 문체적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중국식 기사 형태 그대로 축자적 번역으로만 이루어져서 가독성이 더욱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뉴스가 지니는 이러한 관습적 글쓰기는 기본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독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인데, 인민일보 온라인의 한국어판은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로 인하여 가독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5. 결론

한 언어에 있는 단어와 완전한 등가성을 갖는 단어를 다른 언어에서 찾을 수 없다는 번역불가능성의 논의처럼, 뉴스는 과연 번역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뉴스가 번역된다는 것이 원문의 가치를 보존하는 것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어 뉴스에서 좋은 번역이란 무엇인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다양한 주체와 현상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뉴스번역 과정을 좀 더 구체화시켜 번역을 목적으로 한 뉴스 텍스트로 그 범주를 한정지어 개념화를 시도했다.

최근 중국매체의 번역뉴스 서비스 현상이 증가하고 있어, 본 연구는 인민일보 온라인 한국어판의 번역뉴스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번역과정에서 뉴스가 변형되는 양상을 가독성 요인에 맞추어 설명하였다. 인민일보 온라인의 번역뉴스들은 인민일보를 번역한 경우에는 거의 모든 바이라인(by-line)<sup>39)</sup>에 번역자의 이름을 표시하고 있을 정도로 명백한 번역뉴스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연합뉴스의 경우에도 한국어 기사에는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이메일 주소를 표기하기도 하지만, 중국어판 번역뉴스(chinese.yonhapnews.co.kr)에는 번역자의 이메일 주소가 표기되고 있다. 이러한 매체들의 뉴스를 번역뉴스로 범주화 하고, 인민일보 온라인 한국어판 번역뉴스의 가독성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인민일보 온라인 한국어판의 번역뉴스는 한국독자의 가독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번역되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가독성이 높은 기사도 한국어 독자들과의 장르관습에 맞지 않아서 뉴스라는 기사 장르에 대한 이해와 글쓰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번역뉴스의 목적은 번역문의 수용자들이 원문에서 보도하는 사실이나 정보를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번역뉴스의 수용자들이 관심을 갖는 대상은 뉴스 자체이지 중국뉴스 원문에서 사용한 호칭이나 형용사의 글쓰기 스타일이 아니다. 특히 뉴스의 경우 수용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문화적 이해의 차이도 크기 때문에 가독성이 특히 중요하여 번역자는 정확하게 원문 뉴스의 정보를 전달한다는

39) 특정한 기사의 끝에 기자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함.

전제 하에서 번역문 수용자들의 사고방식이나 글 읽는 습관에 부합하는 표현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본 연구가 일부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한 연구이어서 번역뉴스 전체의 사례로 확대 적용하기는 힘들겠으나 인민일보 온라인 한국어판의 가독성문제는 충분히 점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시된 사례들을 통해 뉴스번역에서 가독성을 살리는 번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줄 수 있었다. 원문뉴스에 지나치게 충실하게 그 원문의 문체, 문장구조, 수식어, 명사 등의 형태를 그대로 보존한 뉴스가 목표언어권에서는 사실상 뉴스로 기능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다. 중국매체들이 자국 내에서 전개하는 번역뉴스는 상당한 가독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해외로 송출하는 번역뉴스의 가독성 역시 하루 빨리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 〈參考文獻〉

- 강수정, 「중국 뉴스매체의 한국뉴스 편역보도에 관한 연구」 『통번역학연구』 제15권,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연구소, 2011.
- 강수정, 「방송뉴스 번역 양상에 관한 연구 - CCTV4 〈금일아주〉의 한국뉴스 번역사례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7(1),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연구소, 2013.
- 강수정, 「중국 번역뉴스의 가독성 적용에 관한 고찰」 『중국문화연구』 제25집, 서울, 중국문화연구학회, 2014.
- 김덕모, 「한국언론의 국제뉴스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 성균관대학교, 1996.
- 김성해, 유용민, 심영섭, 「글로벌 디지털 시대의 국제뉴스 - 온라인 국제뉴스에 대한 국가별 비교연구」 『언론정보연구』 48(2), 서울,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2011.
- 박천일, 「방송의 국제뉴스 선정과정과 통제 매커니즘 비교분석 연구」 『언론과 사회』 7호, 서울, 성곡언론문화재단, 1995.
- 원용진, 『텔레비전 비평론』,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5.
- 이은숙, 「문학번역 평가의 문제: 충실성과 가독성」 『통역과 번역』 10(2), 서울, 한국통역

- 번역학회, 2008.
- 정나영, 「TV 뉴스 번역에서의 삭제 양상 분석 - KBS월드뉴스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4(1), 서울, 한국번역학회, 2013.
- 정철운, 「한국언론의 글로벌 전략 사례」 『신문과 방송』 535호,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2015.
- 정호정, 「번역학 전문학술지의 발달과 최근 연구동향」 『통역과 번역』 15(1), 서울, 한국통역번역학회, 2013.
- 홍정민, 「한국의 뉴스 번역 참여자 간 권력 관계를 반영한 게이트키퍼 수정 모델」 『번역학연구』 13(4), 서울, 한국번역학회, 2012.
- Bielsa, Esperanca and Susan Bassnett, 『글로벌 뉴스와 번역』 노승엽, 손은희, 권인경, 이한별(역), 서울, 도서출판 동인, 2009.
- 賈文波, 「文本類型的翻譯策略導向—異化, 歸化討論后的思考」 『上海科技翻譯』 2004(3), 上海, 上海科技翻譯學會, 2004.
- 呂宁, 「新聞編譯中的“選擇”—以『參考消息』的一篇報道爲例」 『新聞記者』 2006(10), 上海, 上海新聞學會, 2006.
- 劉其中, 『新聞翻譯教程』,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4.
- 李雅芳, 「如何實現國際傳播中的“無障礙”閱讀—以北京周報社的播傳播實踐爲例」 『中國翻譯』 2015 (5), 北京, 中國翻譯協會, 2015.
- 孟憲英, 「譯文可讀性的翻譯策略」 『沈陽師範大學學報』 2012(1), 沈陽, 沈陽師範大學, 2012.
- 宋靜, 「文本功能與新聞英語翻譯中的歸化異化」 『湖南科技學院學報』 30(9), 永州, 湖南科技學院, 2009.
- 閔威, 「對外新聞編譯的忠實與叛逆」 『中國翻譯』 2011(6), 北京, 中國翻譯協會, 2011.
- 吳自選, 「德國功能派理論與CNN新聞短片英譯」 『中國科技翻譯』 2005(1), 北京, 中國科學院, 2005.
- 吳自選, 許建忠, 「論電視新聞英譯的重寫策略」 『上海翻譯』 2011(1), 上海, 上海翻譯學會, 2011.

〈Abstract〉

A Research on Readability of Translated News  
- Centering on the Korean Version of People's Daily Online

Kang, Su-Jung

The study aims to develop a more effective theory to explain news translation process by exploring current practices of news translation that is widely published in international news. To that end, this study examined how People's Daily Online translated its Chinese news into Korean for better readability. It was found that the translated news would be of less readability if the translated version does not have genre conventions of the target sprachraum culture even if the translation process would require abridgment, deletion, addition and modification of the original text.

Key Words: News Translation, Translated News, Edited Translation, Readability,  
People's Daily

주제어: 번역뉴스, 뉴스번역, 편역, 가독성, 인민일보

이 논문은 2016년 4월 10일에 접수되어 2016년 5월 9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6년 5월 9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